

합류시대는 쉽게 성취하는 시대다.

오늘 자비로운 아버지, 마음의 정복자가 관대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그의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밥다다가 크고 무한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모든 이의 마음을 정복하는, 모든 이의 마음의 위로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공여자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변함없이 행복한 그들의 마음으로 세상을 기쁘게 한다. 너희는 행복이라는 행운을 가진 그런 영혼들이다.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은 세계를 받쳐주는 지원이다. 너희 모두 깨어나서 한결같이 불 밝혀진 등불이 될 때 세상도 역시 깨어난다. 너희가 잠들면 세상도 역시 잠에 빠진다. 너희 모두가 올라가는 단계일 때는 모든 영혼들이 유익을 받는다. 모든 이가 각자의 능력과 때에 따라서 해방과 삶 속의 해방을 성취한다. 너희가 세상을 다스릴 때 모든 영혼은 해방된 상태에 있다. 너희가 통치할 때는 세(3) 세계 어디에도 슬픔의 이름이나 흔적이 없다. 너희는 모든 영혼이 아버지에게서 한 방울의 평화와 행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줘서, 그 한 방울로 그들이 오랫동안 갈구해온 소망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영혼들과 세계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성취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성취의 화신들이 아니냐? 이것은 너희가 모든 성취의 공여자인 영원한 아버지, 모든 힘에 대한 행운의 공여자, 1초에 너희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는 축복의 공여자, 또한 고귀한 행운의 공여자인 영원한 아버지의 친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권리를 가진 영혼인 너희들은 너희의 권리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이 고귀한 영적 도취감과 변함없는 행복을 경험하느냐? 너희들은 무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너희의 마음은 한정된 그 어떤 성취에도 끌리지 않을 테지? 너희는 변함없고 쉬운 성취의 화신이 되었느냐? 아니면 너희는 노력을 많이 하고도 결실은 조금만 성취하느냐? 지금 현재는 즉각적인 열매를 따먹는 계절이다. 그저 강력한 하나의 생각을 갖거나 강력한 한 가지 행동을 행해라, 그러면 그 씨앗 하나를 통해서 너희는 결실을 몇 백만 곱절로 얻는다. 이처럼 너희는 계절 과일을, 즉 쉬운 과일을 얻고 있느냐? 너희는 과일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과일이 나오기도 전에 마야라는 새가 그것을 망치느냐? 따라서 너희는 이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요가를 하고 모든 것을 공부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봉사한 후에도 마땅히 성취해야 할 만큼을 성취하지 못하느냐? 하나에 대한 보상으로 수백만 배를 받기 때문에 너희는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취의 결실이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그 주의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만큼은 없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이나 행위의 씨앗이 강력하지 않고, 분위기라는 땅이 강력하지 않거나, 혹은 땅이나 씨앗은 괜찮고 과일도 나오지만,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제한된 생각과 함께 너희가 설익은 과실을 따먹기 때문이다. 아니면 마야의 온갖 다양한 문제들, 분위기, 나쁜 친구들의 영향, 자아나 남들의 지시, 낭비적인 생각이라는 새들이 과일을 망쳐서, 이런 이유로 너희는 결실, 즉 성취의 경험이라는 보물을 상실한 채 머물기 때문이다. 빼앗긴 그런 영혼들의 말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라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낭비적인 노력을 하는 자들이 아니겠지? 너희는 쉬운 요기들이 아니냐? 쉬운 성취의 계절에 어째서 너희가 애쓰느냐? 너희는 유산을, 축복을, 이미 받았고 지금이 바로 그 계절이고 너희는 또 관대한 마음을 가진 공여자와 함께 한다. 행운의 공여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느냐? 마음의 옥좌에 한결같이 앉아 있는 자녀들은 수고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생각을 하면 성공한다. 올바른 방법의 스위치를 켜면 너희는 성공한다. 너희는 그런 성공의 화신들이 아니냐? 혹은 너희가 노력하며 지치느냐? 수고해야 하는 이유는 부주의함과 게으름이다. 너희들은 의식의 화신인 요새 안에 머물지 않는다. 혹은 너희가 요새 안에는 머물러 있지만, 이런저런 힘의 부족이라는 문이나 창문을 연다. 그래서 너희는 마야에게 기회를 준다. 너희에게 어떤 힘이 부족한지, 즉 어떤

방향이 열려 있는지 점검해라. 너희의 생각에 결단이 없다면, 그 경우엔 문이 조금 열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잘 전진하고 있다고, 모든 규율을 잘 지키고 있으며 슈리마트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최상급의 행복과 결의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한다. 너희는 강압 받는 느낌이나 두려움을 갖고 규율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브라민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거나 생각할까 하는 염려로 인해 규율을 지키는 것은 아닐 테지? 결단을 나타내는 표시는 성공이다. 결단이 있는 곳에는 성공이 없을 수 없다. 너희는 상상조차 결코 해본 일이 없는 것을 성취할 것이다, 즉 너희는 이제껏 상상한 그 무엇보다 더 크게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시대는 모든 성취를 쉽게 받는 시대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쉬운 요기이며 축복의 공여자가 되는 한결같은 권리를 가진 자들이 되어라. 이해하느냐? 만일 너희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가 된 후에도 애써 수고해야 한다면, 그럴 경우 주인이 됨으로써 얻은 게 무엇이나? 애쓰는 데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어려운 일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아버지를 너희들은 찾았다. 그러니 왜 아직도 수고하느냐? 너희는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져라, 그러면 너희가 천사처럼 계속 날아다닐 것이다. 앗차.

변함없이 행복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쉬운 열매를 성취하는 화신인 자들에게, 축복의 공여자에게서 끊임없이 성공을 달성하는 축복 받은 상속자 영혼들에게, 마음의 위로자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 편자브 지구 .

너희들 모두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들이냐? 너희의 자아각성의 원반은 항시 돌고 있느냐? 자아각성이 있는 곳에서는 너희 모두 일체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데, 왜냐하면 자아각성의 원반은 마야에게서 오는 장애들을 끝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각성의 원반이 있는 곳에는 마야가 없다.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자아를 깨달았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은 세계의 시혜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장애의 파괴자이기 때문이다. 가네쉬는 장애의 파괴자라고 불린다. 가네쉬는 참으로 많이 숭배된다. 그들은 극진한 사랑으로 그를 숭배하며,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치장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아주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장애의 파괴자들이다. 이 생각이 장애들을 끝내는데, 생각은 너희가 형태를 만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는 장애가 있다, 나는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한다면, 그 경우에 너희는 장애의 형태가 된다. 약한 생각을 함으로써 너희는 나약한 세계를 창조하는데, 너희가 약한 생각을 단 하나라도 가진다면 그 하나의 생각 다음엔 다른 여러 개의 약한 생각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왜?” 또는 “무엇을?” 이라는 하나의 생각은 “어째서?”와 “무엇이?”라는 다른 여러 개의 의문들을 불러온다. 너희가 “나는 마하비르다”, “나는 고귀한 영혼이다”라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면, 세계도 역시 고귀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 세계도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게임이다. 행복한 생각들을 한다면 너희는 그때 행복한 분위기를 경험한다. 너희가 슬픈 생각을 떠올린다면 그 경우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도 너희는 그것을 슬픈 분위기로 느낄 것이며 너희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 확고한 결의를 가져라, 그러면 장애들이 마술처럼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만일 “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난 모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만트라라는 효력이 없다. 예컨대 너희가 의사에게 가면 그는 우선 먼저 자기를 믿느냐고 물을 것이다. 약품이 아무리 좋아도 너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약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뭔가 없어지는 사물인 반면 여기서는 불멸하는 뭔가의 문제다. 그러니 항상 너희가 끊임없이 장애의 파괴자라는 것과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임을 기억해라. 너희는 심지어 지금도 어떤 형태로 숭배되느냐? 그것은 지금 너희들의 이

마지막 생이 사악하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로 보관되어 온 기념물은 없지만, 이런저런 형태로 너희들의 기념물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 끊임없이 너희 스스로를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 쉬바의 아들, 장애의 파괴자 가네쉬라 여기며 전진해라. 너희가 뭔가에 대해 모른다는 저만의 생각을 만들어내서 그 나약한 생각들로 인해 너희는 사로잡힌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행복해하며 춤추는 자들, 모든 이에게서 장애를 없애주는 자들이 되어라. 남들의 어려움을 쉽게 만들어주는 자들이 되어라. 이를 위해서는 그저 “나의 것은 무엇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 속한다” 라는 결단력 있는 생각을 하며 2중으로 가볍게 머물러라. 짐을 계속 갖고 있으면 너희는 온갖 종류의 장애들을 다 경험한다. 너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너희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이 머문다. 너희가 “이것은 내 것이다”라 할 때는 장애들의 거미줄이 생긴다. 그러니 거미줄을 걷어내는 장애의 파괴자가 되어라. 이것은 또 아버지의 과업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과업은 모든 자녀들의 과제다. 행복해하며 과제를 행할 때 너희는 그 일을 하는 데서 아무런 장애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너희의 과제를 행하며 스스로 바쁘게 유지해라. 너희가 바쁘게 지낼 때는 마야가 올 수 없다. 앗차.

2. 너희가 반짝거리는 성공의 별임을 항상 의식하느냐? 심지어 오늘날에도 모든 이들은 하늘의 별들이 빛을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단한 사랑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이 사랑 받는다. 것처럼 너희들 역시 빛나는 성공의 별들이다. 모든 이가 성공을 사랑해서 일부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과제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모든 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반면 너희는 이미 성공의 별들이 되었다. 심지어 너희들의 살아있지 않은 형상들도 여전히 성공의 축복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으로 위대하고 고귀하다! 이 도취감과 믿음을 유지해라. 너희는 성공을 뒤쫓는 자들이 아니고,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 즉 성공의 화신이다. 성공은 자동적으로 너희를 뒤따라 올 것이다.

3. 너희들 스스로를 끊임없이 아버지와 함께 하며 그의 협조를 한결같이 받는 영혼들이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끊임없이 그의 동반을 경험하느냐? 끊임없이 아버지와 동반할 때 너희는 쉽게 모든 성취를 다 가진다. 아버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너희가 모든 성취를 다 가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든 성취의 공여자이기 때문이다. 공여자가 너희와 함께 할 때는 모든 성취도 역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동반한다는 것은 모든 성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모든 성취의 화신인 영혼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충만하고 항상 흔들림 없는 영혼이 된다는 의미다. 충만하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동요될 것이다. 가득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동반해주고 있으니 그것을 받을 자들은 그것을 받아야 합당하다. 공여자가 주고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그냥 조금만이 아니라, 전부 다 받아야 마땅하다. 신봉자들은 그저 조금으로 행복해하지만 지식이 많다는 것은 그것을 다 취한다는 뜻이다. 앗차.

독일 그룹 .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 스스로를 아버지와 가까운 보석이라고 여기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국가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너희들은 마음으로는 더 가깝다. 이를 경험하느냐? 변함없이 아버지를 기억하며 머무는 자들은 그 기억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가깝게 경험한다. 너희는 쉬운 요기들이 아니냐? 너희가 “바바”라 하므로 바바라는 말이 너희를 쉬운 요기로 만든다. “바바”라는 말은 마법의 말이다. 뭔가 마술적인 것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도 사물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행복, 평화, 힘 중 뭐든 너희들 모두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저 “바바”라고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느냐? 밥다다는 결별했다가 다시 와서 그를 다시 한 번 만난 자녀들을 보며 기쁘다. 누구의 행복이 더 크겠느냐? 너희들이냐, 아버지냐? 밥다다는 끊임없이 각 자녀들 하나하나의 특질을 기억한다. 너희들은 참으로 운이

좋다! 바바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느냐? 너희 모두 각자의 특질을 가진 특별한 영혼들이다. 비록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살고 있고 다른 종교로 들어갔어도 여전히 아버지를 알아봤을 정도로 너희들 모두 특별함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 특별한 산스카르와 더불어 너희는 특별한 영혼들이 되었다. 앗차.

Blessing: 봉사 현장에서 너희 스스로에게 봉사하는 것과 모든 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의 균형을 유지하고 마야의 정복자가 되어라.

모든 이를 위해 봉사하는 것과 더불어 너희 스스로에게 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봉사와 남들에 대한 봉사의 이 균형은 너희가 항상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봉사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동안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마야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에서 외향적이 됨으로써 너희는 기적들을 보지 못하고 너희의 성질과 남들의 성질이라는 동요에 사로잡히게 된다. 너희가 봉사하며 뛰어 돌아다니는 동안 마야는 너희 지각이 뛰어 돌아다니게 만든다.

Slogan: 너희들이 가진 모든 특질의 씨앗들에 모든 힘의 물을 줘서 그것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